

# 사설

## 불교도 금강산 순례

각 종단의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요 직책을 맡은 스님들 4백여명과 연예인을 포함한 신도 7백여명 등 총 1천1백여 불자들이 금강산을 전세 내어 3박4일간의 금강산 순례 길에 올랐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펼쳐지는 남북화해의 해빙무드를 탄 행시라곤 하였으나 불교계로서는 분단이후 반세기만에 처음 있는 의미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불자들에게 금강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명산이란 차원을 넘어 부처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연지대 인식에 앞선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금강산은 법기보살이 항상 1천2백명의 보살을 거느리고 살법하는 곳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많은 고승들이 금강산에서 수행하였으니 금강산은 그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요 부처님의 상주도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순례 길에 오른 불자들이야말로 불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연의 땅을 누구보다도 먼저 밟게 되는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과거생에 선근을 많이 쌓은 공덕의 덕분이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보다 더 굳게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오는 이 땅의 불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타종교에 비해 통일운동이나 남북교류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전개하는 데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순례 길을 계기로 불교계내에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 이제까지 침체되고 도외시되었던 통일운동이 활

성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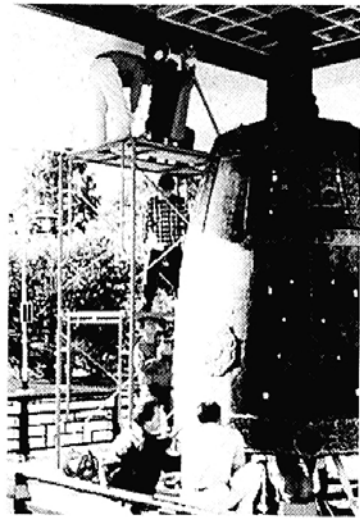
그러자면 먼저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금강산 순례 길에 올랐던 이들이 남북민간교류의 길을 넓히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의 금강산 순례행사가 단순히 금강산을 참배하는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화합을 다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행히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터 복원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 순례 길에 신계사터에 참배도 하고 법회도 가질 것이라 하니 복원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계사터 하나의 복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산재한 고사찰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로 나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넓히는 데 시급성이 될 수 있게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게 된다는 역사적 의미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등산에 한국사찰을 건립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구부선에 그치고 말았던 점을 거울삼아 신계사의 복원사업은 선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번 행사는 어느 종단이 독자적으로 펼치는 행사가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펼치는 행사인 만큼 이번 순례 길에 동참한 각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 금강산 순례 길을 계기로 해서 북녘 땅의 사람들도 침묵의 벽을 깨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울려 퍼지는, 살아 움직이고 생명있는 도량으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96년 10월 성덕대왕신종을 정밀 실측하고 있는 모습.

## 에밀레종 신비의소리 빠르면 가을 다시 듣는다

빠르면 올 가을부터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29호)의 신비한 종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은 박물관 경내 성덕대왕신종의 타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 경주박물관 과학적 검증 정기타종 건의 3년간 정밀조사 종합보고서 2권 펴내

이같은 결정은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성덕대왕신종의 안전진단을 위해 실시한 종합적인 학술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종합조사보고서〉와 〈종합논문집〉에 따른 것.

국립경주박물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종의 보존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종 위쪽 천관(천장 부분)에 결구가 있는 것 외에는 타종을 중단할 결정적 결함은 없다"며 "금속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겨울철을 피해 매년 봄·가을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타종할 것을 문화재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종시 종의 깨짐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학계 주장에 따라 92년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이후 지금까지 치지 않았던 성덕대왕신종의 타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종합조사보고서〉에는 황수영(한국미술사·前 동국대총장), 정양모(도사·국립중앙박물관), 이상무(기계설계·서울공대 학장)박사 등이 3년간 실시한 '실측' '음향' '종합측정' 등의 조사 결과가 실려있다. 이 조사에는 총 3여8백만원이 소요됐으며 〈종합논문집〉에는 역사·미술사·과학기술 세 분야에 걸쳐 성덕대왕신종과 관련된 논문 13편 등이 수록됐다.

이번 조사 결과 성덕대왕신종의 무게는 18,908kg이고 구리와 주석이 85:15 정도의 혼합된 청동주물이며, 고유진동수는 60Hz 이상으로 측정됐다. 또 종의 성분분석 결과 '인'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아이를 넣어 신종을 주조했다'는 설화는 전설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기본-전문-지도자과정 구분 조계종 신도교육 체계화”

포교원·종회 포교분과, 신도법 개정원칙 합의

98년 '조계종 신도교육의 해'를 계기로 본격화 된 신도의 교육과 조직화를 위한 조계종의 법적조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1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신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신도교육과정을 기본·전문·지도자과정으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에 앞서 처음 접을 방문하는 초심자를 위한 입교과정을 반드시 두기로 하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입교용 소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신도 등록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찰단위로 한정된 중앙신도회 조직에 지역신도단체와 전국조직의 연합신도단체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신도의 입문교육과 수계, 심화교육과 조직화, 정기적 수행과 사회활동 전개를 재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호불호의 건강한 신도조직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원은 6월 중에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공개강담회와 한 차례의 공중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폭 보완된 신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26일 제141회 중앙종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문화관광부 장관에 박지원씨



문화관광부 장관에 박지원(57) 전 대공보수석이 임명됐다. 문화부 차관에는 김순규(52) 문화부 기획관리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 초대 문화재청장 서정배씨



5월 3일 승격된 문화재청의 초대 청장 서정배(57) 전 예술인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 “불교정신 구현위해 일치단결”

한·일불교교류 20돌 공동선언문 채택

5월25일부터 시작한 한-일불교문화교류 20주년 대회가 5월 27일 기념법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첫날인 5월25일 일본 대표단 80여명과 한국 대표단 1백60여명은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을 참배하고 대구 파르호텔에서 환영만찬을 가졌다. 이튿날인 26일에는 '21세기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의 사명'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한-중-일 3국이 보조를 하나로 하여 승가의 교류와 대중복지증진을 추진하려는 기운이 실현된 것은 시대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어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면서 "자리아타불이의 불교정신의 구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몸바칠 것을 서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한-일불교문화교류 20주년 기념법회에는 고산(조계종) 인곡(태고종) 윤덕(천태종)스님 등 주요종단 총무원장과 서문각 대한불교진흥연 이사장, 서석재

(국민회의) 박철원(자민련) 함종한(한나라당) 불자 의원, 송석규 동국대 총장, 김순규 문화부차관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어린이들이 삼금 9백만원을 증정할 의회 회장 고산스님에게 전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국민기초생활법’ 촉구 고산스님등 종교지도자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과 대한승교회 정철범 대주교, 기독교장로회 강민원 총회장 등 7개 종교 지도자들은 5월 26일 새 내각 출범에 맞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빈부격차와 소외 등을 분열이 심화돼가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서둘러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존과 공생, 화합과 평화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포교소책자 9권 완간

전법도량 모범사례집도

조계종 포교원이 계층별 포교강화를 위해 발간해 온 포교소책자 1차분 9권 시리즈가 완간됐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은 최근 일반인과 청소년, 재소자, 대학생 등 4개 계층에 대한 포교소책자를 추가 발간함으로써 군인과 실직자, 환자 등 대부분의 계층에 대해 소책자를

## “신도위계 정해 교육세분화 필요”

동국대교육원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 학술대회

조계종이 신도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교육연구원(원장 유시규)이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이란 주제로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의 재가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학술대회를 4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탁선종 교수(동국대)는 신도 위계를 정하고 그 위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정한 후 제도적으로 운

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현각스님(동국대 교수)=재가교육에 대한 종법상의 규정과 각지에서 이를 이행케하는 통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교학에 치우치지 않고 신생활과 연계되도록 입문교육 기초교육 심화교육 지도자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수학적과정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며 신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신자관

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진각종-효봉정사(진각종 중앙교육원 교무부장)=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 개방화,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한 정보화, 경전 등을 쉽게 한글화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가교육을 위해 법종단의 차원에서 〈통합불교성전〉이 나와야 한다.

◇천태종-도원스님(천태종 교육부장)=금강불교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정규대학 설립을 통한 자체 교수 확보, 총문학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력관리, 불교학과의 수업연한 연장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믿음이 갑니다

## 우롱큰스님 법문집

#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나?

일평생을 수행과 증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원 / 값 5,000원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위한 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I. 새벽예불 II. 오분향례 III.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IV. 거룩한 사대보살 V. 영산회상의 제자들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VII. 자타일시불보도

신국판 / 5,000원